



서울 사람들 달성으로 관광오세요 달성군은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에서 옥외광고와 플래시몹 공연을 통해 달성군 관광지 홍보 계몽운동을 펼쳤다.(사진=달성군제공)

홍준표대구시장 怒했다... 달빛철도법 무산

(노)

국회 대표발의자 무책임
총선 반드시 책임 물어야
홍준표, 페이스북에 예타
면제조항 빼면 의미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건설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대표 발의자는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이 총선 표심을 의식해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그 법안은 예타 면제 조항을 빼면 의미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의원 26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예타 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다.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국토교통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며 "김천에서 거제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횡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대구지역 지방신문 서울 주재 기자가 예타면제 삭제하고 달빛철도법 통과하자고 오늘 기사를 쓴 걸 봤는데, 그 기자 그 법을 단 한번만이라도 읽어보고 그 기사를 썼느냐"며 "핵심내용(예타면제)을 빼고 겹떼기만 통과시키자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예타면제 빼면 그 법안은 의미 없는 법안"이라며 "그럴바엔 다음 국회 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은 이번 총선에서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홍 시장은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달빛철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자기들(원내대표 등 발의자)이 발의해 놓고 보류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에도 그는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를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하나"며 "본인이 발의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찬 기자



경북도, 3747억원 투입 "푸른 하늘 만들겠다"

경주 천북관광단지 조성 '올스톱'

태영건설의 경영난으로 경주시 천북면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천북관광단지는 태영건설과 경주시가 천군동, 암곡동, 천북면 764만㎡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호텔,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태영건설은 천북면 투나엑스포골프장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태영그룹 계열사인 태영건설과 블루윈이 각각 건설과 운영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맡은 태영건설은 2020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안 협의 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오수처리 문제로 관광단지 지정을 취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관광단지 추진을 중단하기 보다는 태영건설과 꾸준히 접촉하며 조성을 촉구해 왔다.

태영건설이 경영난을 겪음에 따라 현재는 천북관광단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용찬 기자

단체장 일정



윤석준 대구시장
15일 오후 신암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동구 새마을회 새마을문고 총회에 참석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15일 오전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

도로수송 생활분야 등 5개 분야 38개 세사업
계절관리제 정책 강화
도민건강 지킴이 앞장

경북도가 도로 수송, 산업, 생활분야 등 5개 분야 38개 세사업에 3747억원을 쏟아붓는다.

조현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정책을 강화하는 등 연중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푸른하늘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수송분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자동차-건설기계 감축을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예산은 1742억원으로 올해 전기 자동차 1만270대, 수소자동차 386대 등 1만656대를

보급한다.

친환경 자동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160대와 도내 최초 수소교통복합기지도 구축한다.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은 736억원으로 조기 폐차 지원에 2만3034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252대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자동차는 2594만9201대, 경북은 153만3863대다.

전기차는 전국 54만3900대(2.1%), 경북은 2만6776대(1.7%), 수소차는 전국 3만4258대(0.1%), 경북은 406대(0.03%)다. 전기차, 수소차 모두 경북에서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산업분야에는 중소기업 477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 17억원을 투입, 민간 감시단을 운영한다.

공장 등 노후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저감시

설 540대, 19억원을 지원한다.

생활분야 감축을 위한 사업에는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039대 설치에 6억원을 지원한다.

농촌지역 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190곳에 10억원을 투입,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에도 41억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2만5674ha에 704억원을 투입한다.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바람길숲 지자체 도시숲 30곳을 조성키로 하고 244억원을 투입한다.

버스승강장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공간 16곳,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50곳을 설치하고, 49대의 버스 전면에는 미세먼지 흡착필터도 부착도록 지원하며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6대 설치에 26억원을 투입한다. 김성용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TK신공항 관문' 군위군 개발에 20조원 투입

군위 중남부 신경제권
글로벌 관문도시 건설
첨단산업과 미래 주거
문화·관광 등 20조투자

경북에서 대구로 새 동지를 틈 군위군의 지도가
확바뀐다.

신공항 도시 군위가 100년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
계획은 군위가 향후 TK 미래 100년을 이끌 명
실상부한 글로벌 신공항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번 계획은 군위군을 넘어 대구시
전체를 위한 계획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개
항에 맞춰 군위군을 중남부 신경제권을 이끌 글
로벌 관문도시로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군위군을 TK 미래 100년을 이끌 '글로벌 신공항
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군위군 도시공간개
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군위군에 TK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및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신공항 인근지역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신공항프리존'을 조성하여 중남부 신경제권
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킨다.

종합계획에는 △첨단산업1·2지구 △신 주거
지구 △문화·관광지구 △군부대이전지구(후보
지)로 구분한다.

공항신도시·공항산업단지·공무원연수시설·
맑은물하이웨이 등 핵심사업과 연계돼 있다.

장래 도시 확장성 및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
도 고려해 교통망, 미래형 에너지, 정수장, 소
각장·매립장, 하·폐수처리장 등 사회기반시설
계획도 반영했다.

■ 최대 30.7km² 산업벨트 구축

신공항 첨단산업지구는 대구-군위 공동합의
문의 공항 배후산업단지 3.3km(100만 평)를 훌
쩍 넘는 파격적인 규모로 최대 30.7km(930만 평)
규모의 터 확보를 계획했다.

첨단산업단지는 동서 방향 산업벨트 형태로
1차에서 3차까지 최대 3개 단지를 계획해 반도
체, 미래차, UAM, 수소, 친환경소재, 미래 섬유
등 첨단산업과 연구시설 등을 도입해 순차적으
로 조성한다.

산업단지는 기업이 산업단지나 주거지를 직
접 개발자 특성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영
개발, 민간개발, 원형지 개발 등 관련 법상의 다
양한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존 대구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식품 가공 공
장을 집적화하기 위해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
역에 '식품산업단지'를 건설해 2차 가공식품의
활성화도 꾀한다.

첨단산업지구 내에는 신공항, 산업단지 및 군
위군 전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복합단
지'를 조성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
현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발전, 지붕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680MW 규모의 소
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도
입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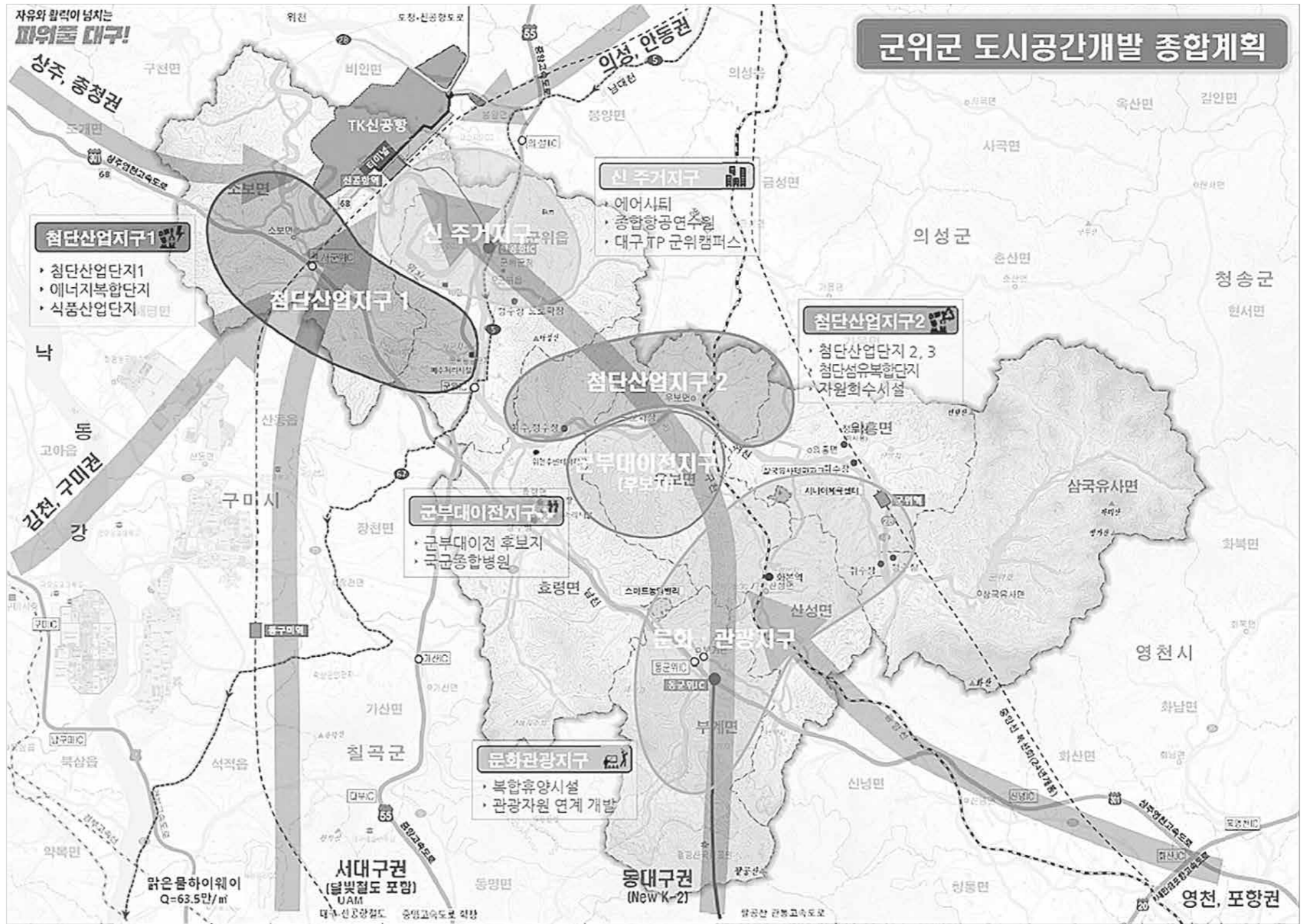
첨단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는 SMR발전소를 통
해 산업단지 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해 기업의 경
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신공항 시설과 주민 주거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한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염색산업단지 이전' 사
업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섬유산업 육성을 목
표로, 미래 고부가가치의 '첨단섬유복합단지'를
건설한다.

섬유복합단지 중 염색 관련 산업은 무방류시
스템을 도입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 경제성이 높은 염색
공정 증기를 공급한다.

유치업종을 단순 염색 중심에서 신소재, 탄소
섬유 등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복합섬유소재 클
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간다.



■ 25만명 규모 미래형 도시

신공항 및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정주하는 미
래형 주거·산업 복합도시인 에어시티는 신공항
근접지에 12.5km(380만 평) 정도를 계획했다.

신 개발 공간뿐만 아니라, 구도심인 군위읍 일
대를 포함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미래 도시로 성
장시켜 나간다.

에어시티는 스마트시티, 중수도, 증기열을 이
용한 지역난방, 친환경에너지 등이 적용된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를 비롯한 신교
통수단(UAM, 무인자율주행 등)이 도입되는 미
래형 도시로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춘다.

조종사, 승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종합
항공연수시설'도 도입한다.

군위군 신공항 경제권 조성을 앞당긴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관·학·연의 혁신자
원을 집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
한 특례법'에 따른 '대구 테크노파크 군위캠퍼
스'를 조성해 국제 R&D 거점도 구축한다.

신공항,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일대는 과감
한 국내의 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이끌어내는
'TK신공항프리존(TKAFZ)'을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우위 신성장 거점으로 만든다.

■ 민·군상생 군부대 이전

국방부와 2023년 12월 14일 민·군상생 업무협
약 체결을 완료한 군부대 이전사업은 현재 대구
시 군위군 외에도 경북도 4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군위군으로 이전지가 결정될 경우, 군위군이
신청한 후보면 일대를 이전지로 확정한다.

군부대 이전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한다.

이전지역에는 '국군종합병원'을 건립해 지역
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관광지구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복합 휴양관광단지 등 문화·관광 향유공간 조
성이다.

산성면, 부계면 일대의 문화·관광지구에는 공
무원 연수시설을 포함해 복합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한다.

공무원 연수시설 단지는 대구시와 구·군 공무
원 약 1만 4000명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시
설 이외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 호텔, 리조트,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
휴양시설 등이 들어선다.

팔공산 국립공원, 삼촌석굴 등 문화유산과 삼
국유사 테마파크, 화반역, 사유원 등을 연계한
다군위군이 추진하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
센터와 180홀 규모 파크골프장 등을 활용해 문
화·관광자원 개발을 가속화한다.

■ 사회기반시설 도입

종합계획은 신공항 개항을 지원한다는 내용
을 담았다.

군위 인구 증가 및 도시의 성장을 감안, 정수
장, 하·폐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
설 건설도 고려했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따른 생활용수의 공
급과 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수

신공항 도시 군위, 글로벌 관문으로 도약!



장을 각각 계획했다.

2030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군
위군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량 증가 등을 감
안해 소각장, 매립장 등 자원회수시설의 배치도
반영했다.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은 2029년 신
공항 개항에 맞춰 인프라와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구상했다.

산업단지 및 에어시티 등 일부 사업은 신도시
활성화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이번 계획은 군위군 등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관련 정부 계획에도 반영한다.

사업 규모는 약 20조 원 내외로 예산과 민간자
본 조달로 추진한다.

군위군의 개발면적은 현재 13km(393만 평)
에서 93km(2,810만 평)로 약 7배다. 인구는 2만
3000명에서 25만 명으로 11배 늘어났다.

산업용지는 0.4km(12.5만 평)에서 30.7km(930
만 평)로 최대 75배가 늘어나고 공장 및 첨단산
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등으로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군위군 전역을 대상으
로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를 거쳐 1월 말 조정한다. 박재성 기자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금한돈상당열쇠와마스크를선거구민에게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 혐오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선거에 출마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해당한다고 보인다. 금 열쇠는 단체 소유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으로 구입한 점, 열쇠를 먼저 사고 회칙을 개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구청 수의계약비율 67% 전국 최고... 투명성 의문

대구시 기초단체 수의계약 달성 44.47%, 달성 41.54% 군위 41.31%, 동구 40.41% 남구 37.54%, 북구 33.65% 서구 33.65%, 수성 27.60%

수의계약비율은 중구 전체 계약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대구지역 기초단체 수의계약 비율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9개 구·군 평균이 40.89%로 나타나 전국 자치구 평균(35.0%)보다 5%p 이상 높았다. 9개 구·군 가운데 중구에 이어 달성군(44.47%), 달성구(41.54%), 군위군(41.31%), 동구(40.41%), 남구(37.54%), 북구(33.65%), 서구(33.65%), 수성구(27.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수의계약 비율은 23.5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위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을 보이는 지자체의 경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기능의 강화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미경 기자



일부 구의원과 집행부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대구 중구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전체 계약실적 210억2000만원 중 수의계약실적 금액이 142억5800만원(67.8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군·구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구 서구 악취 민원 1년새 119배 증가...

악취 민원 작년 3월 대규모 재개발 단지인 평리뉴타운 아파트 입주...

가동해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해 후 악취발생원을 추적, 배출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공단과 기초환경시설이 밀집한 대구 서구에 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1년새 10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다량배출사업장 굴뚝에 복합악취시료를 포집하는 등 검사를 늘리고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옥상에 채취장치를 설치했으며, 야간 새벽 시간대에 산업단지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서구청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이 1만3451건으로 전년(113건) 대비 119배 증가했다.

서구의회는 최근 '악취저감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악취 민원은 지난해 3월 대규모 재개발 단지인 평리뉴타운의 아파트에 입주자가 시작되면서 급증했다.

대구시는 염색산업단지, 하·폐수처리장,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5곳을 이전하거나 지하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세워 2030년까지 주민들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미경 기자

민원이 쏟아지자 서구는 비상염색산업단지 와 서대구산업단지 등에서 대기감시시스템을

대구시, 작은 결혼식 예정 예비부부 100만 원 지원

2024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대상자 모집

올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대구시 예비부부 각 80쌍에게 예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사실 확인 등의 심사를 통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저출생 대응과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 대상자 80쌍을 모집한다.

지원금 예산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은 고비용 결혼식에 따른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과소비와 허례허식을 없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확산한다.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에서 예산비용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는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단순 사진 촬영이나 가족·친지 식사, 연약식 등 결혼식으로 보기 힘들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는 결혼식 경비를 일부나마 지원함으로써 고비용 혼례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 인식을 개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결혼식 이후 1개월 이내 예산 장소, 예산비용

조여은 기자

'뇌물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 사의...

2월회장 후보자추천 예정 공정 투명차기 회장 선임

장추천위에 "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던 2018년 5월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 회장은 경영 혁신 등을 통해 DGB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3년 동안 끌어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이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

취임 초 67조원이던 총자산이 100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하이투자증권과 하이투자파트너스 등을 인수해 DGB금융을 은행·보험·증권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키웠다. 조미경 기자

영진전문대, 해외 취업률 전국 1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2022년 대졸자 취업률 발표서 79.2%

라 등 삼성계열사에 240명, LG이노텍·LG디스플레이·LG유플러스·LG화학 등 LG계열사에 380명, SK하이닉스·SK실트론·SK에너지 등 SK계열사에 325명, 한화그룹사 91명, 포스코그룹사 67명, 현대그룹사 73명, 신세계그룹사 48명, 롯데그룹사 48명 등 국내 대기업에는 2168명이 입사했다.



영진전문대가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2022년 대졸자 취업률 발표에서 79.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해외취업률은 전국 2·4년제 대학교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최재영 총장은 "주문식교육 기반 위에 신산업 분야와 사회실무 분야로 교육과정 확대 개편, 기업체 기관과 협력해 취업박람회 개최, 영진자율향상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취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대기업 취업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호텐신

Large advertisement for Daegu Metropolitan City featuring the slogan '살고 싶은 도시' (A city you want to live in) and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Happy citizens, proud Daegu). The ad includes illustrations of a young man, a child, and a family, along with the text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and '행복한 가정'. At the bottom, it says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and includes the Daegu Metropolitan City logo.



경주법주, 오늘 출고분부터 가격 인하

경주법주(주)가 대표 제품인 경주법주, 천수, 화랑 등 약주와 청주 제품의 출고 가격을 오는 15일 출고분부터 인하한다. 설 명절기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

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법 시행 전에 선 제적으로 가격을 내린다. 경주법주 700ml는 기존 7281원에서 6938원, 화랑 375ml는 4227원에서 4028원, 천수 700ml는

3417원에서 3220원으로 인하한다. 경주법주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설 명절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 코스피 (-15.22p) 2,525.05	▼ 코스닥 (-14.45p) 868.08
▲ 엔 화 (+8.17p) 907.49	▼ 유 가 (-0.16p) 1,565.23
▼ 환 율 (-0.19%) 1,315.00	▲ 금(金) (+32.40) 2,051.60

www.dgy.co.kr

이차전지 제조장비, 대구·경북 수출 효자 특목

대구·경북 이차전지장비 주요기업수출 작년 11월 10억4천5백만달러 성장

이차전지 장비가 대구·경북지역의 수출 효자 우뚝섰다. 최근 이차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장비 수출이 급성장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전기차 배터리·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이차전지 장비 수출이 대구는 전년 동기 대비 50.5% 증가한 5억 6900만달러, 경북은 34.2% 증가한 5억 68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구·경북 전체 수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대구의 이차전지장비 주요 수출 품목은 화학 기계(코팅·건조 등 전극공정 설비), 압연기(롤

프레스 기계), 운반하역기계(배터리 제조공정 자동화 장비),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분리막 등 이차전지 소재 생산 장비) 등이다. 이 중 화학기계는 전년 동기 대비 144.3% 증가한 1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은 코팅 등 전극공정 설비인 '기타기계'와 '운반하역기계'가 주요 품목으로 꼽혔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4%, 78.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2억4500만달러에 불과했던 대구·경북 이차전지장비 주요 기업의 수출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0억4500만달러로 5배 가량 성장했다. 이근화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차장은 "지역의 이차전지 장비기업의 성장은 국산화에 성공하거나 기술력을 앞세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이 안 팔려서 못 들어가...” 새 아파트 10채중 3채 ‘깜깜’

기존 집 안 팔리고 세입자 못찾아 규제 완화 후에도 입주 포기 우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도 주택 입주율(입주 지정 기간이 도달한 아파트 가운데 자금을 완납한 가구 비중)이 여전히 침체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가 사실상 끊기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하지 못한 분양계약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새집 입주를 포기하고, 세를 주려 해도 고금리 탓에 세입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 질벽에 따른 입주율 저하와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시행 등 주택사업자들이 제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유동 위기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하락하면서 7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3%로 전월 대비 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70%대를 회복했던 입주율은 11월 72.3%로 연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면서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81.1%에서 76.2%로 4.9%p 떨어졌다. 5대 광역시는 70.1%에서 65.0%로, 기타 지역은 70.7%에서 65.8%로 각각 하락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84.9%→79.9%)과 인천·경기권(79.3%→74.3%) 모두 소폭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특히 강원권의 입주율이 65.0%에서 53.7%로 11.3%p나 떨어졌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49.1%)을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18.2%)와 세입자 미확보(18.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9.4로 지난 달에 비해 7.7p,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0.0p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은 81.6에서 77.3으로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74.4에서 80.4로, 도 지역은 66.0에서 79.4로 각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92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7만5438가구)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이른다. 2년8개월 만에 1만 가구를 돌파했다.

산지 쌀값...정부 대책에도 하락세

농협 재고량 전년比 20만톤 ↑ 정부, 사료·주정용 방출 박차

산지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지난해 9월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쌀값 반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하락세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kg당 4만9164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5일(5만4388원) 대비 9.7% 하락했다. 지난해 9월5일(4만9851원)과 비슷한 가격으로 산지쌀값은 10월5일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공개매매 실시, 산물벼 전량인수 정부양곡 40만톤 사료용 처분, 민간재고 해외 원조용으로 매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유통업체들이 배매입량 증가로 재고부담과 올해 단경기(6~7월) 쌀값 하락을 우려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책에도 업계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간 중소형 업체들은 재고부담이 여전히 이유를 들며 배매입을 꺼리며 농협의 재고량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는 시장상황을 관망하면서 추가 하락세가 관측될 경우 매입일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생산된 쌀은 370만2000톤인데, 농협 또는 민간RPC가 매입한 물량은 220만여톤에 달한다.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쌀이 150만톤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매입된 양은 전년보다 37만톤 더 많은데 이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터 정부양곡의 사료·주정용 매각과 해외원조 물량 방출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DGB대구은행 ‘iM모임통장’ 출시...

최고 2.01% 금리 제공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iM뱅크’를 만든다...

DGB대구은행은 최고 2.01% 금리를 제공하는 모인 전용통장 iM모임통장을 출시한다. 행사 참여 후 조건 충족 고객 대상 전원 커피 쿠폰 증정, 현금 100만 원 추첨 증정 등의 행사를 한다. iM모임통장은 모임비 납입여부 확인이 편리하고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가 적용돼 계모임, 공동 경비 관리 등에 유용한 상품이다.

iM뱅크 앱에서만 판매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으로 기존 수수료우대통장이 있더라도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모인회비 자동이체 납부신청 모인원 수와 예금 잔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해 최고금리 2.01%가 적용되며 우대 조건 등 자세한 상품 내용은 iM뱅크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월23일까지 커피 쿠폰 증정, 현금 100만 원과 식사권을 추첨 증정하는 '이차주고 선물주는 iM모임 절대 강추!' 이벤트를 한다.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의 2명 이상 DGB대구은행 계좌에서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 등록하는

모든 모임주에게 iM뱅크 쿠폰함에 메가MGC커피 커피쿠폰 10매를 지급한다. 행사 종료일 기준으로 잔고 500만 원 이상 유지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금 100만 원, 잔고 100만 원 이상 유지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식사권을 지급한다. 행복우 은행장은 "DGB대구은행은 올해에도 iM뱅크 신용카드 이벤트, 더쿠폰 예적금 행사, 주택담보대출 대환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iM뱅크를 만든다. 조미경 기자

티웨이항공, 올해 ‘메가 얼리버드’ 초특가 행사

연중 최대할인 미리 준비 2024년도 합리적인 여행

티웨이항공이 15일부터 연중 최대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메가 얼리버드'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 노선은 국내선 4개(김포-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청주-제주)와 국제선 26개(일본, 호주, 대양주, 동남아, 홍콩, 몽골) 노선이다. 원활한 접속을 위해 16~18일까지 노선별 순차 오픈되며, 판매는 21일까지다. '티웨이플러스' 회원이라면 15일부터 전용 운임으로 하루 먼저 전 노선 예약이 가능하다. 먼저 '메가 얼리버드' 초특가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가 포함된 1인 편도 총액 기준으로 △국내선 2만 1,900원~△일본 6만 7,300원~△동남아 10만 600원~△홍콩 11만 3,100원~△아시아 12만



9,140원~△시드니 32만 4,710원부터 판매한다. 초특가 항공권을 놓쳤더라도 항공권 검색 단계에서 할인 코드 '메가얼리버드'를 적용하면 편도 노선별로 5~15% 추가 운임 할인이 즉시 적용된다. 여기에 결제 시 최대 5만 원까지 중복 할인받을 수 있는 카카오페이 쿠폰도 매일 선착순으로 지

급한다. 이처럼 일 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되는 티웨이항공 2024년 '메가 얼리버드' 프로모션의 항공권 탐승기간은 오는 3월 31~10월 28일까지다. 노선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LCC 최초로 구동형 멤버십 '티웨이플러스'를 운영하고,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차별화된 여행 특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번 '메가 얼리버드' 프로모션 역시 티웨이플러스 회원을 위한 사전 예약 행사를 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연중 가장 큰 프로모션인 '메가 얼리버드' 기회를 잡아 올해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최대 매출

작년 매출액 455억원 전년 대비 19% 늘어나

지난해 '사이소' 매출액이 455억원으로 전년 382억원 대비 19% 증가했다. 입점농가 수는 223호로 전년 1,821호 대비 22%가 늘어났다. 회원 수는 13만2,506명으로 전년 86,746명 대비 53% 증가했다. 월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설, 추석, 포함돼 있는 1월(51억원), 9월(106억원)이 157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35% 차지했다.

4/4분기 10월(67억원), 11월(67억원), 12월(33억원) 실적은 167억원으로 1월, 9~12월 5개월간 실적이 324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71%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명절 및 연말, 연시에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발맞추어 사이소에서는 명절 선물기획전, 연말합인전, 수산물 기획전 등 시기별·주제별 소비자 맞춤형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부터 소비자 접근성 향상, 제품 다변화, 통합마케팅 등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쇼핑몰을 3년에 걸쳐 2023년도

단위 광역플랫폼으로 통합 완료한 것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쇼핑몰 회원관리, 등록상품, 결제 및 정산 등 통합 관리, 체계적인 고객 대응과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사이소'뿐만 아니라 시군 쇼핑몰에도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역별 다양한 상품과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2024년 매출액 500억원, 회원 수 15만명과 입점 농가 2,500호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김주영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고객 맞춤형 행사, 타기관 협업 등을 지속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 쇼핑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손광락 한의원, 희망나눔캠페인 1000만원 기탁

손광락한의원이 지난 11일 경주시청을 방문 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경주시 동부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손광락 원장(경주3호 아너소사이어티)은 1991년

한의원 개업 이후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4년부터 매년

1000만원의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손광락 원장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돈인데 당연히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가곡항에 100억 투입 어민들 삶의 질 높인다

커뮤니티 역할 수행 어촌 스테이션 운영 경제 활성화 큰기대

경주 감포 가곡항(대면·2리)은 어촌 생활플랫폼(유형II)에 선정돼 2027년까지 어촌앵커가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어촌앵커는 지역에 상주,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는 민간 주체를 말한다.

지역 생산물과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어촌 먹거리 개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역할과 귀어 정착 지원을 수행하는 어촌스테이션 운영으로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친수·생태공원, 마을 생태하천, 숲 놀이터 등의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마을안길 정비,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해 빈 집을 활용한 어촌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5개 어항에 총 사업비 414억원을 투입해 어항 안전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감포 전촌항, 양남 하서항이 각각 선정돼



150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주낙영 시장은 "그간 낙후된 어촌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지속적인 공모사업 도전 끝에 현재 총 10개 어

항 중 8곳이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해 어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경주 양성자과학연구원 화백회의실에서 양성자과학연구원-주다원메디스가 '양성자가속기 기반 암 치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연구단과 회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성자과학연구원 제공)

양성자가속기 활용 의료기술 분야 기술 혁신

양성자가속기-(주)다원메디스 가속기 기반 '암치료' 기술... 고도화 공동 연구 전격 착수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 양성자과학연구단과 (주)다원메디스가 손잡고 가속기 기반 '암치료' 기술에 나선다.

지난 9일 '양성자가속기 기반의 암 치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본격 연

구에 들어갔다. 공동연구는 붕소중성자표화치료의 상용화를 목표로 양성자가속기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성자가속기를 통한 붕소중성자표화치료 기술은 암세포에 직접 효과를 발휘하는 혁신적인 대체암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는 (주)다원메디스와의 협력으로 이 기술의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주)다원메디스는 국내 최초로 붕소중성자표화

치료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의료복합기업이다. 양성자과학연구단의 첨단 기술과 (주)다원메디스의 의료 기술이 결합, 암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욱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의료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고, 붕소중성자표화치료의 상용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 지방세 문의 인공지능 챗봇 도입

시민 편의 도모 지방세 납부 이해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

경주시가 지방세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인공지능 질의응답 서비스를 도입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GPT스토어'를 이날 공개함에 따라 '경주시 지방세 챗봇' 서비스를 함께 출시했다.

지방세 챗봇은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질의에 쉽고 편리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질의응답 서비스다. 과세 대상, 체납절차, 세금해탈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 행적만

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T스토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월 20달러(약 2만 6000원)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시는 별도의 월정료가 없는 인공지능 질의응답 서비스를 조만간 개발해 '경주시 지방세 챗봇' 서비스와 함께 운영한다.

경주시 지방세 챗봇 서비스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경주시청 세정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재두 경주시 세정과장은 "경주시 지방세 챗봇 서비스는 시민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계약원가심사로 117억원 예산 절감 성과

경주시가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11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총 826건, 3148억원 규모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공사·용역·물품 원가산정기준 요율 및 과다설계 오류를 바로 잡아 공사 96억원, 용역 15억원, 보조금 3억원 등 117억원(절감율 3.7%)을 절감했다. 경주시가 2010년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절감액이다.

2022년도 총 618건, 2477억원 규모 계약원가심사에서 689억원을 절감한 것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72%를 더 절감한 셈이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 제공

경주페이, 올해 7~10% 캐시백 혜택 제공

경주페이 작년 발행액 1800억 최고 10%...151억원 인센티브

경주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을 올해도 제공한다. 시는 올해 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은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 캐시백을, 나머지 10달은 월 40만원 한도에서 7% 캐시백을 지급한다.

발행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1200억 원 규모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미확정으로 추후 확정되면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페이 인센티브 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

는 만큼, 소비력 역의 방지, 고금리 및 고물가 인헤 힘든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경주페이 모바일 기부 서비스인 'HAPPY동행'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경주페이에 건강간기 마일리지, 정책발행금 등 각종 지원금과 다양한 시책을 담아 경주페이 활용도를 대폭 개선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제 경주페이는 시민들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카드 자리매김했다"며 "경주페이가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배터리의 미래를 충전하다
경상북도 상주**

미래산업을 움직이는 이차전지의 중심!
경상북도 상주가 K-배터리 허브 도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충전하겠습니다.

-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1조 원 투자유치
- SK에코플랜트와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위한 MOU 체결
- (주)아바코와 300억 원 투자 MOU 체결

상주시
SANGJU CITY

포항 울진 청도 칠곡



왜관교회

사랑의 생필품박스 기탁

왜관교회는 지난 12일 왜관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랑의 생필품박스 120박스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해 달라며 기탁했다.

장육현 왜관교회 담임목사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생필품박스를 기탁했다"고 말했다.



울진 스카이라일 전동차 운행 중단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라일 전동차에서 배터리 과열 추정으로 연기가 발생해 운행이 중단됐다.

1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라일 승하차장에 정차 중이던 전동차에서 연기가났다.

스카이라일 측은 안전 조치를 위해 운행을 중단하고 10여분 만에 연기를 껐다. 다행히 전동차에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골프회원권 조사

포항시 남구청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골프 회원권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046명의 체납액 78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청은 골프 회원권 소유자에 대해 납부최고기한을 지정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할 수 있게 예고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 6차산업 친환경 농업도시 건설

새콤달콤 명품 청도딸기출하 김하수, '딸기재배농가' 격려

맛과 향이 뛰어난 명품 청도딸기가 본격 출하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읍 사촌리 소재 하이베드 딸기 재배농가를 방문, 격려했다.

김 군수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신기술보급과 교육을 확대, 청년들이 농업인으로서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딸기 생산과 가공산업, 딸기 수확 체험 등을 융합한 농업의 6차산업을 이끄는 혁신하는 친환경 농업도시 청도군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장주인 김창섭(31) 씨는 스마트팜청년보

육사업을 통해 딸기재배기술을 배웠다.

이후, 하이베드단지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약 900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 매년 24톤의 딸기를 생산하고 약 2억 4천만 원의 조수입을 올리는 청년 선도농가로 거듭났다.

하이베드 재배는 고설재배라고도 불리며, 지면보다 높은 곳에 인공 베드를 설치, 과실이 공중에서 착과돼 부패 걱정을 덜고, 각종 병해충 방제에도 유리하여 고품질 딸기 재배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청도군에는 현재 135여 농가에서 71.8ha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다.

연간 175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청도딸기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펙틴 등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방지와 항암작용은 물론 혈관질환 예방,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도 좋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교육발전특구 지정 행정력 집중

군민복지 담은 협력체 구성 교육발전특구 적극대응 나서

울진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에 적극 대응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진군은 얼마전 교육발전특구 추진 협력체(이

하협력체)를 구성, 위촉식과 사업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협력체는 손병복 울진군수와 황석수 울진교육지원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3개 대학교(영남대, 동국대 WISE 캠퍼스, 경일대학교)교수, 관내 초·중·고등 교육기관 대표, 관내 학교별 대표 학부모를 위원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울진군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 공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다.

위촉식 진행 후 준비한 기획서(안)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운영방안 △자율형 공립고 우수 모델 창출 방안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 방안 △국가 산업단지 입주 대기업과 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방안 △대학교 유치 및 특례 입학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오는 23일 경북교육감과 협약을 맺고, 2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교육발전특구와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인터넷과 우편으로 손쉽게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1월 말까지 진행,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정수 기자

울진, 농림어업인 연 1% 저리 융자 지원

울진군은 농림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해 연 1%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개인 1억, 법인 2억 이내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사료 구입 등이 해당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어구·어망 구입 등이 해당된다.

2024년도 지원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두고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 작목반, 영농어법인 등이다. 신청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포항에 호텔급 조·중식 제공 아파트 등장

명품아파트 조건 조·중식제공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 '확산'

포항지역에서 호텔급 조·중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차별화 전략으로 서울·경기권역에서 명품아파트의 필수조건으로 각광받고 있는 호텔급 조·중식 서비스를 지역 최초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호텔도 아닌 아파트에서 아침, 점심까지 제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노년층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세대 내 취사 기능이 약화되면서 조식 서비스 제공이 트렌드로 아파트 입주주민들 사이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균형잡힌 식단으로 매뉴를 매번 변경해 제공하는데다 포장까지 가능해 주부들의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입주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조식 서비스는 일부 고급아파트에서 시작돼 현재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태지만 경북지역에선 포항 상생공원이 최초다.

이 아파트는 조식에다 중식을 더한 조·중식 서비스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는 주민커뮤니티에다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활성화에 대해 요리사와 종사자 등을 찾고 있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대기업인 현재 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상생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축한다. 2개 단지 총 2667가구로 이번에 2단지 지하 5층~지상 35층, 전용면



포항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차별화 전략으로 서울·경기권역에서 명품아파트의 필수조건으로 각광받고 있는 호텔급 조·중식 서비스를 지역 최초로 제공한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제공)

적 84~178㎡ 1668가구를 오는 26일 우선 분양한다.

하늘과 맞닿아 숲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길'을 비롯 포스코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와 워터플라자, 아트플라자, 국민체육센터 등이 조성돼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창명 기자

청도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112억 쏟아

청도군은 올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12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시, 군이 대출이자 3%를 1년 동안 보전하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 원을 융자추천한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조여은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희망특별시 - 푸르고 편리한 환경 희망특별시 - 내 삶이 즐거운 복지 희망특별시-로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다변화 3(이차전지·바이오·수소) + 1(철강고도화) 일자리 1,000개 창출, 10,000개 양질 일자리 GRDP 2018년 18조 → 2030년 30조 관광 1,000만 관광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웨이 3대 프로젝트 완성 도시재생 3대 재생사업 완료 생태하천 4대 하천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육아 공공지원 및 인프라 확대 체육 집안 5분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재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완성 문화예술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활동해 경제수도 도시	친환경 생태 도시	100세 행복도시

영덕 울릉 청송 영양



영덕 송이생산자협회의 정기총회

영덕송이생산자협회는 지난 11일 영덕군 산립조합 임산물 유통센터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행사엔 김광열 영덕군수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 재임 동안 영덕송이 홍보와 활성화에 이바지할 이원용 이임회장에겐 존경을 표하고 신임 이상범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송이 생산자협회를 이끌어 준 이원용 전임 회장에 이어 취임하신 이상범 회장 또한 영덕송이가 12년 연속 생산량 전국 1위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MBC '밤에 피는 꽃' 방영



청송군이 제작 지원한 MBC 금·토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12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토 밤 9시 50분에 방영된다.

주요 배경이 되는 '좌상택'은 청송군의 문화재이자 대표 관광지인 '송소고택'에서 촬영됐다.

드라마 방영으로 국가민속문화재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청송의 문화유산들이 재조명, 관광 명소로 급부상되고 청송사과, 청송백자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 특산물 홍보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의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만큼 청송군이 관광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 새해 읍면 방문

남한권 울릉군수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북면을 시작으로 3일간(9-11일) 마을별 현안 및 주민 의견을 들었다.

남 군수는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심도 깊은 대화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받아 군정에 적극 수렴한다.

남 군수는 "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의 과면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비상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주민들과 소통, 울릉대전환의 함께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 갑진년 백년대계 초석 청사진?

지역경제 활성화 꾀하는 직원 모두 사업주체 돼 더 나은 내일 모두 함께 행복 영덕건설 주역되자

김광열 영덕군수가 갑진년 새해 영덕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김 군수는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부흥의 땅' 영덕건설에 총매진한다.

김 군수는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회'에서 핵심 정책을 비롯한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 내년 국·도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정치·경제·사회·환경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문제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와 실천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한 발짝 더 빠른 업무 추진으로 사업의 순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의 주체가 돼 더 나은 내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영덕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군은 올해 발 빠른 업무 추진과 능동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연초 보고회를 미리 준비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부서별 보고 방식으로 군정의 방향성과 사업의 세부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해 업무능률을 높여도왔다.

보고회에서 김 군수는 역대 최초로 본예산 6000억 원을 확보한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의 군



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괄목한 성과를 얻기 위해 단계별 전략을 세워 보고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했다.

김 군수는 보고회에서 △관내 중학교 명문화 기반 마련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홍보 강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영덕 블루로드의 랜드마크화 △관내 웰니스 명소화 △영덕시장재건축사업의 조기 준공을 강조했다. 이뿐 아니다.

△적극적인 농촌 인력 지원사업 추진 △농·수특산물 판로 확보 △수산물 가공사업의 고부가가치 실현 △영덕송이의 수도권 홍보 △지역 여건에 맞춘 대중교통 편의 증진 △스포츠 마케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성 있는 문산호 리뉴얼 등에 행정력을 모아 군민이 행복한 영덕의 초석을 다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울릉군, 경북도 2개 부문 대표축제 선정

오징어축제 2025년까지 매년 5500만 도비 지원

울릉군 대표 축제인 '오징어축제'와 '눈 축제'가 '2024-2025년 경북도 지정 우수축제'와 '작지만 경쟁력 있는 미소(微笑)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경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2025년 2년간 경북을 대표할 지정축제 14개(최우수축제 2, 우수축제 6, 유망축제 6)와 미소(微笑)축제 9개를 선정했다.

'오징어축제'는 2023년 경북도 지정 유망축제 선정에 이어 올해는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축제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2025년까지 2년간 매년 55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눈 축제'는 지난해 미색(微色)축제 선정에 이어 올해는 미소(微笑)축제로 뽑혀 1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울릉군을 대표하는 두 축제가 경북도를 대표하는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 결과가 축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

해 축제도 참신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울릉 관광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달 1-3일까지 3일간 나리분지 일대에서 울릉도 눈 축제가 열린다.

눈 축제는 천연 눈으로 조성된 슬로프 길이 190m의 대형 눈썰매장과 나리의 설경을 즐길 수 있는 스노우 래프팅, 신나는 음악공연과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지역주민 및 울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겨울철 울릉도의 매력과 함께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정윤환 기자

영덕 사랑의 모금운동 활화산



2024 갑진년 새해 영덕군에 울려 퍼지는 사랑의 모금운동이 활화산처럼 터오르고 있다.

온정의 손길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면서 풍요의 땅을 더욱 기쁘게 한다.

영덕군 희망2024 나눔캠페인 모금운동이 지난 12일 기준 목표 대비 150%가 넘었다.

모금운동 활화산

지난 8일 지품수암교회(차광명 목사)가 200만원, 월월이정청 보존회가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11일에는 젊은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덕군 4-H연합회(지역 생산물 판매액 1500만 원)를 보냈다.

영덕군의 대표적인 고질 장육사와 경북자동차전문서비스조합 영덕군지회가 각각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12일에는 ㈜대흥건설이 500만 원, 관내 봉사단체인 원원의 기적이 100만 원의 성금을 영덕군에 기탁했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 이달 31일까지 진행, 모금된 성금은 향후 관내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방방 및 연료비 등에 지원된다.

오션비치골프&리조트, 천만원 쾌척

영덕군 구강면에 있는 오션비치 골프&리조트 조재관 대표가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 지난 12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조 대표는 평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범양건영 500만원 기탁

부산에 있는 종합건설업체 범양건영 주식회사(대표 강병주)가 지난 12일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범양건영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강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조여은 기자

청송소방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청송소방서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일상생활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을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다짐하는 범국민이 참가 계몽운동이다. 바이바이 플라스틱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촉구한다.

윤대승 소방서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대화용 기사용자제를 돌려, 동참하겠다"고 했다. 윤병문 기자

경산 영천
고령 성주

고령군 2021년 총생산 전년보다 37.1%↑...



성주 금화건설 강신부 대표
8호 아너소사이어터 가입

경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주군 제8호 아너소사이어터 가입식을 지난 11일 성주군 문화강좌실에서 진행했다.

회원은 5년간 1억원을 약정 기부하기로 뜻을 밝힌 금화건설 대표 이사 강신부씨다.

성주군은 이번 8호 아너의 가입으로 경북 군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아너를 보유하게 됐다.

'24년 나눔캠페인 기간에 가입해 군 전체 기부금액에도 큰 도움이 됐다.

강 대표는 이번 가입식에는 역대 아너들과 제4대 성주군 나눔봉사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축하하고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기부관련 홍보도 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영천시, 대구·경북 7개 대학 '향토생활관' 입사

영천시는 대구·경북 7개 대학의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학생은 오는 19일, 신입생은 24일까지 접수하며 남녀 총 160명을 선발한다.

영남대 50명을 비롯해 경북대 대구 30명, 계명대 20명, 대구 가톨릭대·경일대·대경대 10명 등이다.

내달 초에 선발하며 지역 초·중·고 졸업(50점) 여부와 생활 정도(30점), 성적(20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등은 가산점(5점)을 부여한다.

자격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인구교육과로 방문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와 장학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경북 23개 시·군 중 1위 차지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 건설

고령군의 2021년 지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37.1% 증가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그동안 고령군민들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국가에서 승인한 통계자료로 나타나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내의 생산규모를 지금보다 더 높게 성장시켜주고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북도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기준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GDRP) 추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의 생산 규모는 113조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평균 4.7% 증가했다.

군은 2020년 1조265억원이던 총생산이 2021년 1조725억원으로 늘면서 37.1% 증가해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포항 27.5%, 울릉 24.6% 등으로 뒤를 이었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 경북 평균은 4299만원이며 구미시가 6372만원으로 가장 높다.

성주군 5982만원, 고령군 5749만원으로 2, 3위에 올랐다. 배영배 기자



'성주참외 & 생명문화축제' 경북 우수 축제 선정

가야산메뚜기축제, 미소 축제로 뽑혀



성주군은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경북도 '2024-2025년 우수 축제'로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는 2024년 경북 미소 축제로 뽑혔다.

성주군 축제는 콘텐츠,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기여, 추진조직 역량, 안전관리체계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는 성주의 대표 브랜드인 성주참외와 생명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축제 콘텐츠로 구성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2022-2023년 우수축제 선정에 이어 올해 다시

우수축제로 선정돼 2년간 1억1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는 메뚜기잡이, 고구마캐기 등 어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을 구상한 점이 주효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미소축제로 선정돼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올해도 알차고 볼거리, 즐길 거리 많은 축제 구성을 통해 성주 축제가 경북을 넘어 전국 으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성주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성주군은 성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다.

올해 판매 규모는 지류(종이) 50억원, 카드 110억원 등 총 160억원으로 10% 할인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종이형 20만원, 카드형 50만원으로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약국 등 1412곳이다. 가맹점 현황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재훈 기자

경산시 서부2동, 평생학습 강좌 추가개설

글쓰기, 클래식 음악 강좌 선정

경산시 서부2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동장실에서 2024년 서부2동학습관 상반기 강좌 선정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를 개최해 수강생 470명, 19개 강좌를 운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서부2동 학습관은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수강생에게 인기가 높은 라인댄스와 기타 중급을 추가로, 클래식 음악 강좌와 글쓰기 강좌를 신규 강좌로 심의 선정했다.

지난해 상·하반기 학습관 수료발표회와 중산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시화한 서부2동 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좌를 개설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근산 서부2동장은 "새로운 자아실현, 창의성 계발, 취미 확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평생학습을 반영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평생학습 사례를 적극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신경윤 기자

고령한국도로공사... 긴급구조지원기관능력평가 우수기관

2023년도 긴급구조지원기관능력평가 우수기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가 선정됐다.

고령소방서는 지난 12일 '2023년도 고령군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기관(소방서)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유지를 목적으로 매년 긴급구

조기관이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는 이번 평가에서 ▲ 2023년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가 ▲ 태풍 등 풍수해 대비 자체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 대응 등 실제 재난 긴급대응 실적 ▲ 재난업무 종사자 긴급구조관련교육 이수 ▲ 재난 대비 장비·물품 보유 등 4개 분야(일반현황, 긴급구조대응활동, 인적자원, 물적자원)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영배 기자

경산시, 한의약 공공의료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 맞은 공공의료 활성화



경산시는 지난 10일 지역 음식점에서 경산시 한의사회 회원과 함께 경산시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산시한의사회 회장 정지영(온누리 한의원), 부회장 이기준(이기준 한의원), 총무 왕기연(왕 한의원) 및 보건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경산시는 2023년 12월 기준 노년(65세 이상) 인구 5만1977명으로 작년 대비 노년 인구가 약 4.5% 증가했다.

전체 인구 28만470명 중 노년(65세 이상) 인구가 18% 이상을 차지해 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14% 이상)에 걸맞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돌봄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산시한의사회 회원들과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 한의약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및 활용 방안을 위한 논의를 했다. 신경윤 기자

경산시한의사회회 정지영 회장은 향후 초고령사회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가 필요한 만큼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의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함을 토로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한의약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경산시 보건 의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대 강화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윤 기자

Together GyeongSan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 첨단산업도시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 미래의 꿈이 자라는 일등교육 조상의 얼이 깃든 찬란한 문화,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경산시가 21세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경산시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구미라면 축제 경북도 우수 축제 선정

구미라면 축제가 2024~2025 경북도 우수 지정 축제로 선정됐다. 경북도가 지역축제 지원을 시작한 이래, 도 지정 축제 선정은 최초로 우수 지정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2년 동안 1억 1천만 원(연 5천5백만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2024~2025 경북도 지정 축제 중 가장 후발주자이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콘텐츠, 2회 만의 급진적 변화, 축제의 성장 가능성 등이 평가위원의 큰 점수를 받았다. 이번 도 지정 축제는 각 시군이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신청했으며, 최우수 2개, 우수 축제 6개, 유망 축제 6개, 총 14개 가 선정됐다. 이은진 기자



새벗유치원 역할놀이 체험 활동

새벗유치원은 지난 11일 체육실에서 유아 117명을 대상으로 '가족의 탄생' 역할놀이 체험을 실시했다. '가족의 탄생' 역할놀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맡아 다양한 상황에서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역할과 책임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의 탄생' 역할놀이는 결혼 예복을 입어보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 꾸미기, 신부대기실 놀이, 혼주, 주례놀이 등의 역할 놀이와 아기탄생의 존에서 아기 인형 돌봐주기 놀이, 돌잔치존에서 돌상 차리기와 돌잡이, 기념촬영 등의 놀이로 이루어졌다. 역할놀이 체험활동이 끝난 후 4세 000은 "결혼식 놀이를 할 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지만 가장 기억에 남아요"라고 말했다.

구미, 美 투자유치·경제교류... 첨단산업육성방점

김장호식 적극적인 투자 세일즈로 글로벌 분수 전문기업 및 투자협의

구미시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덴버, LA를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방문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글로벌 분수 디자인 및 투자 타깃기업 방문, 현지 경제단체 교류 활동 개최 등 혁신기술 발전 동향을 확인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단은 현지시간 8일 특수 분수 디자인 및 시공 전문 글로벌 기업인 미국 WET(Water Entertainment Technologies)사를 방문해 테라스 폴드웰 CDO(최고개발관리자), 안드리아 실바 디자인 책임자 등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구미시 소개와 함께 시가 추진중인 각종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미시는 낭만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지역 현황을 설명하고, 구미시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WET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향후 지역 관광인프라 조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9일에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개최되는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관내 소재 대표기업인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노트를 차례로 방문하고 혁신기술을 살펴봤다.

국내 로봇분야 전문기업(베어로보틱스, 위로보틱스)을 초청해 신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이어 국내 로봇분야 선도기업인 LG전자, LG넥스원, 위로보틱스, 구일엔지니어링 등 4개사와 함께 '구미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해, 향후 구미를 중심으로 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약기업들이 상호 협력하



기로 했다.

10일에는 경북도 유레카관과 공동관을 찾아 지역 참가기업인 에이엘에티, 포인드, 헥스하이브를 방문해 혁신제품 관람 및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관내 소재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부스에서 새로운 신기술 발전동향을 살펴봤다.

박람회 참관을 마친 후에는 미국 현지 기업인, 관계기관과 '구미DAY 네트워크'를 개최했으며, 미국가산단 및 지역투자인프라 등 구미시 투자여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적극적인 기업투자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구미시는 우수한 공업 용수, 전력 등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한 점과 반도체,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등을 적극 어필했다.

11일 대표단은 덴버로 이동해 투자 타깃기업인 A사를 방문하고 투자협의를 진행했다.

김장호 시장은 오랜시간 구미에 투자와 관심을 보여준 기업 관계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구미가 반도체·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최적지임을 어필해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에 기업 관계자로부터 향후 투자시 구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2일에는 LA(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가 현지 한인 경제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지 기업인, 상공인들과 향후 구미시와의 경제 교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미주대구경북향우회, CES 참가기업 등과 교류

활동을 펼치며 구미시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더욱 공고히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2024년 글로벌 혁신기술 발전동향을 확인하고 구미 첨단전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로봇산업 분야에서 구미시가 관련 선도 기업들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로봇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벨라지오 분수와 같은 최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반도체,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귀국 후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진 기자

문경 '돌리네 습지'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재 계획

세계적 명품 생태관광지로 발돋움 위해 중점과제 선정

문경시는 세계적으로 희소성과 중요성을 인정받은 '문경 돌리네 습지'를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4년 중점 10대 과제에 포함했다.

'문경 돌리네 습지'는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형에 습지가 형성된 매우 희귀한 곳으로 습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세계 람사르습지 인증,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후보지 선정,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등 국내·외 인증사업 5관왕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증 사업을 준비해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에도 등재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외 인증사업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경 돌리네 습지'는 더 나아가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습지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습지로의 진입도로 개선과 단산터널 개통에 따른 접근성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차장 및 숙박시설, 음식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단순히 습지를 구경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생태관광을 위한 에코촌 조성, 생태관광코스 개발,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습지의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올 연말 탐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돌리네 습지의 가치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돌리네 습지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세계 질 내내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숲속 콘서트 등 다양한 테마의 생태체험 프로그램



램을 개발하여 탐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색다른 생태여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국 문경시장은 "문경세계 케이볼카와 하늘길, 문경세계 테마파크를 연계한 문경 새재 지구 관광지 조성과 더불어 문경 돌리네 습지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명소로 만들어 문경시의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예천진호국제양궁장 각광



예천군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양궁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3일 군에 따르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6일부터 경주시 서라벌여중 양궁팀 7명이 예천진호국제양궁장을 찾아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8일부터는 울산대학교 양궁팀 4명이 예천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경북체육중학교 양궁팀 11명이 예천을 찾는다. 2월에는 예천지역 중학교 양궁팀을 비롯해 대전 대청중, 부천 부일중 양궁팀이 예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다.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일본 양궁대표선수와 간기대학교 선수로 구성된 일본 전지훈련팀 70여 명이 예천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안병욱 기자

K-배터리의 미래를 충전하다 경상북도 상주

미래산업을 움직이는 이차전지의 중심!
경상북도 상주가 K-배터리 허브 도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충전하겠습니다.

-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1조 원 투자유치
- SK에코플랜트와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위한 MOU 체결
- (주)아바코와 300억 원 투자 MOU 체결

상주시 SANGJU CITY

안동 영주
봉화 예천

안동시, 세계문화유산 가치 향유에 박차



권기창 안동시장은 15일 오전 용상시장에서 열리는 2024년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 소통의 날' 출정식에 참석, 갑진년을 맞아 용그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5일 오전재산면사무소, 오후 3시 명호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읍면 군정설명회'에 참석한다.



봉화군, 읍면 순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인들의 새해영농계획수립을 위한 현장감 있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8일 봉성면에서 시작된 이번 교육은 관내 10개 읍면을 순회해 31일 석포면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지역특화품목인 벼, 고추, 사과, 수박 4개 품목의 기술교육과 2024년 농업기술센터 농정홍보소 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당면 영농현장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교육, 작목별 병해충 대응방법 교육 등 최근 변화된 농촌의 여건에 대처할 경영혁신 교육과 농촌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농업인들이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함께 영농계획 알차게 준비해 풍년이 가득한 한해를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영주시보건소,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영주시보건소가 올해도 지역의 사업장, 대학교, 군부대, 경로당 등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은 평소 금연 의지는 있으나 여건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직접 신청기관을 찾아가 금연상담교육 및 검사 등을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이다.

시 보건소는 지난 10일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에서 홍보 캠페인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소는 연중 기관의 신청을 받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금연상담사를 신청기관에 주기적으로 파견해 1:1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성기 기자

하회마을 명소화사업, 국제학술대회 개최
신규사업2, 문화재청 공모사업 10건 추진

안동시가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임지를 다지는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시는 세계 인류문화유산이 숨쉬는 생동감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하회마을 명소화 등 다양한 세계유산프로그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회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명소화사업 추진
하회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하회마을 내 LPG 배관망 구축, 통신선로 교체, 마을 안길 정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국비 28억 원(총예산 37억 원)을 확보해 3월 착공할 예정이다.

하회마을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나후된 통신 시설 교체 및 연료비 부담 개선으로 주민 숙원 해결과 더불어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보존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2025년 말까지 하회마을 명소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하회마을의 역사경관 회복과 관람객 편의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정비,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2개 분야이다.

이를 위해 마을 내 경관 정비로 조선시대 전통적 분위기 조성, 하회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식 및 체험·전시 공간 확보, 선유줄놀이 상설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도모, 하회마을 관광자원 발굴 통한 상품화 등을 추진한다. 2025년 말까지 하회마을 명소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계유산 보존·활용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3대 카테고리 달성에 따



른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안동 세계유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유산 관리 및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안동이 보유한 세계유산의 보존·활용 및 미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 보유 지자체로서 선진적 학술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향후 관내 세계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또한 관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발굴을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반계획 연구를 시행, 시의 소중한 무형유산인 차전놀이, 선유줄놀이 등 등재 가능한 유산을 발굴하고 등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2건 등 문화재청 주관 공모사업 10건 추진
안동시는 문화재청 주관 각종 공모사업에 총 10건이 선정됐다.

그중 '슬로패션 금소마을'과 '도계의 열두마당 세시이야기'가 신규로 선정돼 추진 예정이다.

'슬로패션 금소마을'은 금소마을에서 안동포가 지닌 전통문화유산적 가치와 삼베가 지닌 친환경적 가치를 향유하는 사업으로 '목어가는 슬로패션 금소마을'과 '돌러보는 슬로패션 금소마을' 프로그램이 올해 6월 중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도계의 열두마당 세시이야기'는 전통 교육공간인 도계서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 다양한 세시풍속을 경험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느끼고 즐기는 사업이다. '열두마당 세시이야기', '도계야

작', '덧발정원 가꾸기'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진행한 문화재야행 '월영야행'은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향후 월영교뿐만 아니라 하회마을에서도 야행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거듭 성장해나갈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문화유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다양한 세계유산 공모사업을 통해 고품격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안동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시민과 국내 관광객은 물론 세계인들과 더불어 향유하여 안동시의 역사적·문화적 위상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길 기자

의성군, 24년 행복마을자치사업 40개 마을 선정

주민자치 발전 위한 마을 자치 집중

의성군은 올해도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마을 자치 역량에 집중하며, '행복마을자치사업'에 참여할 40개 마을을 선정했다.

행복마을자치사업은 각 마을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 내 자치 구조를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복마을자치사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2단계는 마을의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해

결하는 데 지원하며, 3단계는 마을자치회의의 조직화, 마을규약 제정, 중장기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서류심사를 통해 1단계로 18개 마을을 선정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2단계 14개 마을과 3단계 8개 마을을 선정했다.

이로써 총 40개 마을이 300만원에서 3000만원 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마을은 ▲1단계 의성읍 용연2리, 단촌면 세촌2리, 점곡면 사촌1리 등 ▲2단계 사곡면 오상2리, 금성면 수정1리, 봉양면 삼산3리, 비안면 산제2리 등 ▲3단계 구천면

조성리, 안계면 도덕1리, 다인면 달제2리 등이다.

특히 2단계 마을 중에서는 사곡면 오상2리가 '2023 경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의성 대표 마을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교류함으로써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군수는 "앞으로도 마을 자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의성 관광두레사업 선정

의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4년 관광두레'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관광두레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주민사업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과 식음, 체험, 기념품, 여행사 분야 창업과 함께 지속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각 지역의 관광두레 피디는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해당 사업기간 동안 주민사업체는 앞으로 의성관광두레 박설희 PD와 각 분야 컨설턴트를 통해 상품개발, 브랜딩, 홍보 마케팅 등의 컨설팅 지원을 받고, 주민사업체 1개당 최장 5년 최대 1억 1천만원까지 사업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광두레가 의성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의성관광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주민사업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발휘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다자녀가족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주 건설에 최선

영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 건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인구정책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족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해 지원 폭을 넓혔다.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천여 가구가 각종 다자녀가족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시설 사용료 및 서비스 감면·면제 혜택은 △수도 요금 감면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면제 △영주주 오토크

안동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확대

관광객 유치 지원기준 15명→10명 완화

안동시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마친 여행사이다.

당일 체험형과 숙박형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당일 체험형 10명 이상(1만 원/1인), 숙박형 10명 이상(1만5000원~1만8000원/1인)과

핑장 사용료 감면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수영장 등) 사용료 감면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 및 풀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에게까지 기숙사(전월세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다자녀 가구 기준 수임으로 실효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20명 이상(2만 원~2만5000원/1인)으로 체류기간에 따라 다르다.

관광지, 식당 및 숙박업소 이용 등의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최근 관광 트렌드가 개별화, 소규모화됨에 따라 당일 체험형 관광객 유치 지원기준을 기존 15명에서 10명으로 완화했다.

관광객이 전통시장으로 방문하도록 하거나, 연내 500명을 초과해 유치한 실적 우수여행

사에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여행사는 일정표를 포함한 관광 사전 계획서를 여행 7일 전까지,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각각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여행콘텐츠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안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가 숨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시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열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웅 부 사 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세계 문자 한글의 장래<4>

신 부 용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운영이사



한류와 한국 제품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에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빠’ ‘대박’ ‘비빔밥’ 같은 우리말이 그네들의 사전에 올랐고 구찌, 루이비통 등 세계적 명품들이 한글로 도안한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외국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 따르면 한국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입니다.

‘K-알파벳’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글이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세상입니다.

인도네시아 짜아짜아족이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채택해 놀라움과 함께 자부심을 안겨 줬던 2009년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런 현상에 기뻐만 할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한글의 약점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세계 문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재론컨대 한글은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훈민정음을 축조해 만든 것이므로 이제는 비상하는 국위에 맞춰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격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 한글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나?

한글의 발전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의 표음 기능을 회복하고, 둘째, 발전하는 현대 문물에 대응해 컴퓨터 접근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표음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현행 ‘외래어표기법’을 폐지하고 언어별로 ‘외국어표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래어표기법은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처음 등장했고 우여곡절 끝에 1986년 문교부 고시로 공포된 후 몇 번 개정됐습니다.

그 골자는 ‘외래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한글 자모 24자만 쓸 것’과 ‘된소리를 쓰지 말 것’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영어 fan은 ‘팬’으로, sad movie는 ‘사드 무비’로 각각 쓰지만 원어민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역시 규정은 핑계기 있습니다.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이 된 것이므로 우리 식으로 써야 한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도 외래어표기법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와 외국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외래어는 이미 우리말이 된 것입니다.

‘라디오(radio)’가 그런 예로 우리말 사전에 버젓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발음인 ‘웨이디오우’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어도 우리말이 됐다면, 즉 외래어라 하면 당연히 사전에 등재됩니다.

따라서 우리말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만 있으면 외래어표기법은 없어도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외국어는 원음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므로 언어별로 발음을 정확히 나타내는 표기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어를 제대로 배워 외국 사람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이렇게 구별돼야 하는데도 똑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 외국어표기법 제정은 한글 세계화의 첫 걸음

우리는 영어 발음을 국제음성기호(IPA)로 표기합니다.

미국에서도 잘 안 쓰는 낯선 발음기호들을 왜 우리가 고집하는지, 마땅한 한글 자모가 없을 때 훈민정음 글자를 빌려 정확한 발음을 표기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외국어를 원음대로 정확히 쓸 수 있는 외국어표기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어표기는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국어를 로마자 병음이란 발음기호로 배웁니다.

세종대왕이 ‘동국정운’을 편찬해 한자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게 하고, 중국인의 한자 발음까지 통일시키려고 중국 옥편(홍무정운)에 훈민정음으로 발음을 달아 ‘홍무정운역훈’이란 책까지 만들었거늘 로마자 병음으로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모여저구니 없는 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이든 날리면’ 가짜뉴스 언론 자유 포장



대한민국국회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지난 2022.9.22. MBC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할 당시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 및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1월12일), 법원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MBC 측에 정정보도료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매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결과’가 아니었다, ‘기자의 양심’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이상 포장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언론의 자유’로 볼 수 없고,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범죄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특정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면 정치권이 가세해 저질 정치공세를 펼치며 가짜뉴스를 더욱 확대·재생산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폐가 내려져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주의와 확증 편향은 결코 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견 ‘허위사실’ 과문자 엄정 책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 ‘허위사실’ 과문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촉발시킨 총리실발 과문자의 출처가 경찰로 밝혀졌습니다.

총리실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대테러센터 상황실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56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받은 문자 원본을 내부 간부진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윤회근 경찰청장은 국회 행안위에서 소방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총리실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정치테러에 대해 ‘경상’으로 축소 보고한 경찰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경찰청이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총리실이 유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금도 테러범의 신상과 당적 등을 감춰주며 새로운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이 작성하고 총리실이 유포한 ‘허위사실’ 과문자의 작성과 유포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새인물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첫 여성 위원장 탄생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에서 최초로 여성 노조위원장이 탄생했다.

도청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치러진 제11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위원장, 사무총장 러닝메이트)에서 기호 2번 박소영 위원장, 김규홍 사무총장 후보자가 기호 1번 손익민 위

원장, 금재정 사무총장 후보를 누르고 전체 투표율 86.2% 가운데 5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11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 박소영(사진·44·인사과) 위원장, 김규홍(42. 안전정책과) 사무총장은 “열악한 공무원 보수,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조직 내 개선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국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북도만의 노동조합 정책을

적극 발굴해 전국 최고의 일터로 만들어, 경북도청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신임 박소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늘 낮은 자세로 조합원과 소통하며 조합의 단결된 열정으로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올바른 조직 문화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앞서 제10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류호정 국회의원직 사퇴 탈당 촉구

지난 12월 8일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국회의원의 직책을 유지한 채로 정의당 당론과 달리(새로운선택)과 신당 공동 창당을 선언하였다.

이후 정의당 당원들의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새로운 선택’과 공동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정치에도 자신의 흑역사를 쓰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당원들의 피와 땀으로 당선된 진보정당의 비례 국회의원이자이다.

자신을 선출한 당원들의 뜻과 달리 제3대 보수세력이 연합한 세력과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깔금하게 당을 떠나서 하라는 요구에는 내 발로는 안 나갈 거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니 그건 못하겠고, 당에서 제명을 시켜주면 의원

직이 유지되니 제명처분을 바라는 듯하다. 자신의 기득권만 부어잡고 바닥까지 처참하게 떨어진 류호정 의원이 지금이라도 제발 여기서 멈추길 진심으로 바란다.

선출직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과 더불어 소속 정당의 가치와 결정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진보정당 의원은 그 책임과 무게가 남다름을 우리 지방의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의 가치 NH 농협

꿈나무야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입금 후 환불 불)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